WEBVTT

00:00:10.419 --> 00:00:11.816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916 --> 00:00:12.976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3.076 --> 00:00:16.457
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실전
문제 세 번째, 네 번째로

00:00:16.557 --> 00:00:17.460
한번 들어가 볼게요.

00:00:17.560 --> 00:00:21.371
우리가 이제 운문을 봤는데, 운문이
다양한 유형들이 나오잖아요.

00:00:21.471 --> 00:00:24.769
여기 나오는 세 번째는 뭐냐면
현대시 두 개가 나온 거지만,

00:00:24.869 --> 00:00:28.428
다음에 볼 실전 문제 네 번째
같은 경우는 고전 운문하고

00:00:28.528 --> 00:00:31.845
현대시하고 엮여 있는 거라서 좀
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.

00:00:31.945 --> 00:00:35.093
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할 내용은
소설하고도 연계되기도 하고 이럽니다.

00:00:35.193 --> 00:00:38.842
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작품
문제를 푸는 건 딱 하나예요.

00:00:38.942 --> 00:00:41.061
출제자가 원하는 건 딱
하나라고 얘기했죠?

00:00:41.161 --> 00:00:44.688
뭐냐면 너희 이 글 제대로
이해했니, 이런 거니까

00:00:44.788 --> 00:00:49.020
그것만 잘 생각한다고 우리가 이제
고민을 하시면 됩니다, 아시겠죠?

00:00:49.120 --> 00:00:51.434
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질
필요가 있는데.

00:00:51.534 --> 00:00:52.665
첫 번째 유형을 볼까요?

00:00:52.765 --> 00:00:55.517
첫 번째 유형은 1번, (가)와

(나)의 화자의 공통점으로

00:00:55.617 --> 00:00:57.264
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는데.

00:00:57.364 --> 00:00:59.852
공통점을 찾을 때는
뭘 하셔야 되냐면.

00:00:59.952 --> 00:01:03.445
그렇죠,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
내용, 주제가 뭔지 확인하시고.

00:01:03.545 --> 00:01:07.331
그다음에 표현상 특징도 비교해
보시는 문제도 있고요.

00:01:07.431 --> 00:01:10.586
공통점에 관련된 거는 정말
많은 내용이 나오는데.

00:01:10.686 --> 00:01:12.165
(가) 작품이나 (나) 작품이나

00:01:12.265 --> 00:01:14.401
우리가 자신 있는 작품이
있을 거예요, 아마.

00:01:14.501 --> 00:01:17.261
그걸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
이렇게 지워가는 것도

00:01:17.361 --> 00:01:19.627
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

00:01:19.727 --> 00:01:23.496
우선 2번 문제 보시면 보기를
바탕으로 (가)의 푸른 별과

00:01:23.596 --> 00:01:26.877
(나)의 형형 등불에 대해 이해한
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는데.

00:01:26.977 --> 00:01:28.853
보기를 이런 건 먼저 보셔야죠.

00:01:28.953 --> 00:01:30.646
그래야 위에 있는 내용을
짐작할 수 있는 거니까.

00:01:30.746 --> 00:01:31.827
보기를 볼까요?

00:01:31.927 --> 00:01:34.745
일반적인 시에서의 밝음과 어둠은
상반된 이미지로 이해된다, 그렇죠.

00:01:34.845 --> 00:01:37.690
상반되죠,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면?

00:01:37.790 --> 00:01:40.580

주로 시련이나 고통 등의 부정적
의미로 풀이되는 어둠과 달리

00:01:40.680 --> 00:01:44.973
밝음은 생명, 이상, 희망 등과
같은 긍정적 의미로 해석된다.

00:01:45.073 --> 00:01:47.034
그러면 우리 이걸 통해서
알 수 있는 건

00:01:47.134 --> 00:01:49.226
(가) 작품의 푸른
별이라고 하는 것과,

00:01:49.326 --> 00:01:51.171
문제가 보니까 푸른
별과 형형 등불이니까

00:01:51.271 --> 00:01:53.116
둘 다 밝음의 이미지잖아요.

00:01:53.216 --> 00:01:55.255
밝음의 이미지니까 뭘까요?

00:01:55.355 --> 00:01:58.914
뒤에 나오는 생명, 이상, 희망
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겠다라고

00:01:59.014 --> 00:02:01.676
생각하시면서 앞에 작품을
이해하면 되겠죠.

00:02:01.776 --> 00:02:04.606
그러면 앞에 작품에서 어두운
내용도 있을 것이고,

00:02:04.706 --> 00:02:06.575
또 밝은 내용도 있을 것이겠다.

00:02:06.675 --> 00:02:08.815
이것도 역시 짐작하셔도 괜찮겠네요.

00:02:08.915 --> 00:02:12.083
그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보기는
(나)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.

00:02:12.183 --> 00:02:14.293
(나) 작품이 좀
색다른 작품이에요.

00:02:14.393 --> 00:02:17.409
감나무 그늘 아래라고 해서
고재종 시인의 작품인데.

00:02:17.509 --> 00:02:19.315
자주 나오는 작품은 아닙니다.

00:02:19.415 --> 00:02:21.952
그렇다고 어려운 작품은
아니더라고요, 보니까.

00:02:22.052 --> 00:02:26.553
그러면 보기를 참고해서 ㉠~㉤을
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02:26.653 --> 00:02:27.610
보기를 보셔야죠.

00:02:27.710 --> 00:02:30.742
(나) 작품을 이해하려면 보기에
대한 이해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.

00:02:30.842 --> 00:02:32.161
보기를 볼게요.

00:02:32.261 --> 00:02:35.575
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
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해서

00:02:35.675 --> 00:02:37.984
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
사유 방식이다.

00:02:38.084 --> 00:02:40.257
사유는 생각의 방식이다
이런 뜻입니다.

00:02:40.357 --> 00:02:42.756
이 시의 화자는 이러한
유추적 발상을 통해서

00:02:42.856 --> 00:02:47.506
자연의 이치와 자신이 처한
이별의 상황을 대응하는 방식.

00:02:47.606 --> 00:02:48.699
벌써 나왔네요, 그러면.

00:02:48.799 --> 00:02:51.433
(나) 작품에서는 이별에
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.

00:02:51.533 --> 00:02:54.373
대응하는 방식으로 주제를
드러내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.

00:02:54.473 --> 00:02:58.349
그러면 (나) 작품은 벌써
이별이라고 하는 화자의 상황임을

00:02:58.449 --> 00:02:59.918
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.

00:03:00.018 --> 00:03:02.466
그걸 우리가 바탕으로
해서 보시면 되겠죠.

00:03:02.566 --> 00:03:03.779
(가) 작품부터 볼까요?

00:03:03.879 --> 00:03:05.194

들길에 서서입니다.

00:03:05.294 --> 00:03:07.862
이 들길에 서서라고 하는
작품은 누구의 작품이냐면

00:03:07.962 --> 00:03:09.701
신석정 시인의 작품이에요.

00:03:09.801 --> 00:03:13.850
신석정 시인 같은 경우는 일제
강점기 때 활동했던 시인이고요.

00:03:13.950 --> 00:03:16.371
그다음에 전원 시인이라고
얘기합니다.

00:03:16.471 --> 00:03:19.097
전원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좀
많았다는 게 특징이죠.

00:03:19.197 --> 00:03:21.519
들길에 서서라고 했는데.

00:03:21.619 --> 00:03:23.609
제가 팁을 좀 하나
드리면, 여러분.

00:03:23.709 --> 00:03:27.482
들길에 서서라고 하면 뒤에가 뭔가
종결되지 않았잖아요, 그렇죠?

00:03:27.582 --> 00:03:31.145
종결되지 않았으면 뒷부분에
뭐가 생략되어 있냐면

00:03:31.245 --> 00:03:35.591
들길에 서서 생각한다, 이
정도의 말을 집어넣으면 돼요.

00:03:35.691 --> 00:03:38.530
그러면 들길에 서서 무언가를
생각할 거 아니야, 그렇지?

00:03:38.630 --> 00:03:39.709
무언가를 생각하잖아요.

00:03:39.809 --> 00:03:41.962
이게 바로 뭐냐면
주제입니다, 주제.

00:03:42.062 --> 00:03:44.969
이렇게 머릿속에 짐작을
해두시고 가면 되겠죠.

00:03:45.069 --> 00:03:48.760
들길에 서서 이 사람이 과연
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.

00:03:48.860 --> 00:03:50.180
갑니다.

00:03:50.280 --> 00:03:52.867
푸른 산이 흰 구름을
지니고 살 듯.

00:03:52.967 --> 00:03:55.279
푸른 산이라고 하는 자연이 있어요.

00:03:55.379 --> 00:03:58.013
자연이 흰 구름을 항상
지니고 있어요, 그렇죠?

00:03:58.113 --> 00:04:00.127
푸른 산 주변에는 항상
흰 구름이 있잖아요.

00:04:00.227 --> 00:04:02.577
내 머리 위에는 항상
푸른 하늘이 있다.

00:04:02.677 --> 00:04:03.335
뭐처럼?

00:04:03.435 --> 00:04:05.063
내 머리가 푸른 산하고
똑같은 거죠.

00:04:05.163 --> 00:04:08.421
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고
1연이 끝났습니다.

00:04:08.521 --> 00:04:10.985
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고 얘기했죠.

00:04:11.085 --> 00:04:12.323
질문할까요, 여러분?

00:04:12.423 --> 00:04:14.917
여기에서 푸른 색이라고 하는 것은
긍정적 의미일 것 같습니까,

00:04:15.017 --> 00:04:16.789
부정적 의미일 것 같습니까?

00:04:16.889 --> 00:04:18.033
그렇죠, 긍정적 의미입니다.

00:04:18.133 --> 00:04:21.292
푸른 하늘을 지니고 있다는
얘기는 플러스 이미지고요.

00:04:21.392 --> 00:04:25.491
항상 어떤 꿈과 이상을 가지고
있다, 이런 뜻이에요.

00:04:25.591 --> 00:04:29.125
이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가 일제
강점기라고 하는 시대거든요.

00:04:29.225 --> 00:04:32.545
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도

역시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

00:04:32.645 --> 00:04:35.298
항상 푸른 하늘, 이상과
꿈을 가지고 있겠죠.

00:04:35.398 --> 00:04:38.085
이게 광복에 대한 꿈일 수도 있고,

00:04:38.185 --> 00:04:40.351
아니면 새로운 세상에
대한 꿈일 수도 있어요.

00:04:40.451 --> 00:04:42.178
그러니까 명확하게 아직
나오지는 않았습니다.

00:04:42.278 --> 00:04:46.486
아무튼 여기에서는 뭐냐면 저
자연처럼,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.

00:04:46.586 --> 00:04:49.788
저 자연처럼 나도 항상 푸른
하늘을 머릿속에 이고 있다,

00:04:49.888 --> 00:04:52.944
머리 위에 이고 있다 그랬으니까
그런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

00:04:53.044 --> 00:04:56.895
바로 뭐냐면 항상 꿈과 이상과
자유, 희망, 소망 이런 것들을

00:04:56.995 --> 00:05:00.586
항상 품고 있다, 이렇게만
이해하셔도 되죠.

00:05:00.686 --> 00:05:02.663
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,
산림은 나무예요.

00:05:02.763 --> 00:05:06.695
나무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
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.

00:05:06.795 --> 00:05:08.022
이거 괄호 쳐볼까요?

00:05:08.122 --> 00:05:10.565
얼마나 숭고한 일이냐라고
표현했습니다.

00:05:10.665 --> 00:05:12.405
마지막에 설의법이 나왔죠.

00:05:12.505 --> 00:05:15.771
아주 엄청나게 숭고한 일이라고
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

00:05:15.871 --> 00:05:17.361
설의법이 사용됐어요.

00:05:17.461 --> 00:05:20.371
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
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.

00:05:20.471 --> 00:05:21.884
엄청나게 숭고한 일이다.

00:05:21.984 --> 00:05:24.745
즉,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
팔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

00:05:24.845 --> 00:05:25.809
뭘 하고 있는 거야?

00:05:25.909 --> 00:05:29.163
우와 이러면서 하늘을
우러러보는 모습 아니겠어요?

00:05:29.263 --> 00:05:33.042
그러니까 1연의 중심 내용은 여기가
1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

00:05:33.142 --> 00:05:36.083
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,

00:05:36.183 --> 00:05:39.164
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
항상 푸른 하늘이 있고,

00:05:39.264 --> 00:05:42.462
그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
나의 삶이 숭고하다.

00:05:42.562 --> 00:05:44.919
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.

00:05:45.019 --> 00:05:47.955
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,
누구의 다리입니까?

00:05:48.055 --> 00:05:49.738
제 다리죠, 자기의
다리일 거 아닙니까?

00:05:49.838 --> 00:05:52.791
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,
젊은 산맥으로 삼고.

00:05:52.891 --> 00:05:56.860
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
지구를 밟았거니.

00:05:56.960 --> 00:06:00.229
부절히 움직인다는, 열심히
움직이고 있는 둥근 지구를

00:06:00.329 --> 00:06:04.177
밟고 있는 모습이 바로 누구의
모습이냐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.

00:06:04.277 --> 00:06:06.120
화자 자신의 모습이겠죠.

00:06:06.220 --> 00:06:09.950
둥근 지구를 든든하게 딛고 서서
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?

00:06:10.050 --> 00:06:11.717
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.

00:06:11.817 --> 00:06:13.921
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.

00:06:14.021 --> 00:06:18.300
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
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.

00:06:18.400 --> 00:06:22.475
아까 위에 나왔던 얼마나 숭고한
일이냐, 얼마나 기쁜 일이냐.

00:06:22.575 --> 00:06:25.799
이게 바로 이제 화자가
연결되고 있는, 연결하고 있는

00:06:25.899 --> 00:06:28.230
화자의 마음이라고
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6:28.330 --> 00:06:31.704
기쁜 일이고, 또 하나 숭고한
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

00:06:31.804 --> 00:06:35.046
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다시 한번
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.

00:06:35.146 --> 00:06:36.833
지금 비록 연약한 존재입니다.

00:06:36.933 --> 00:06:39.832
연약한 존재지만, 하늘을 항상
우러러 보고 있는 거고,

00:06:39.932 --> 00:06:42.691
그다음에 부절히 움직이는,
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

00:06:42.791 --> 00:06:44.685
지구를 든든하게 밟고
서 있는 거야.

00:06:44.785 --> 00:06:48.352
그러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삶을
이렇게 잘살고 있는 모습이다.

00:06:48.452 --> 00:06:50.225
이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되겠죠.

00:06:50.325 --> 00:06:54.968
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.

00:06:55.068 --> 00:06:58.260
이게 좀 역설적 인식이
나타나 있는 건데요.

00:06:58.360 --> 00:06:59.618
생활이 슬퍼요.

00:06:59.718 --> 00:07:01.734
생활이 슬퍼도 괜찮다.

00:07:01.834 --> 00:07:03.432
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.

00:07:03.532 --> 00:07:07.608
생활이 슬프다고 하는 것은 이
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는 거겠고.

00:07:07.708 --> 00:07:10.935
아니면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
현실 자체가 좀 억압적이고,

00:07:11.035 --> 00:07:12.350
부자유잖아요.

00:07:12.450 --> 00:07:14.414
자유가 없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다.

00:07:14.514 --> 00:07:18.074
어떤 태도냐면 담담한
태도라고 합니다.

00:07:18.174 --> 00:07:19.893
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.

00:07:19.993 --> 00:07:21.965
담담한 태도.

00:07:22.065 --> 00:07:24.444
또는 낙천적이다 이것도
가능하겠네요.

00:07:24.544 --> 00:07:26.719
낙천적인 태도도
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

00:07:26.819 --> 00:07:30.735
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
좋다,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

00:07:30.835 --> 00:07:33.786
저문 들길에 서서
푸른 별을 바라보자.

00:07:33.886 --> 00:07:37.808
아까 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위에
나왔던 게 푸른 하늘이 있다고

00:07:37.908 --> 00:07:41.688
얘기했는데, 여기에서는 푸른
별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.

00:07:41.788 --> 00:07:44.253
그러니까 이 푸른 별이라고
하는 것도 위에 나왔던

00:07:44.353 --> 00:07:47.344
그 푸른색의 이미지하고 유사하다는
거 느낄 수 있겠어요?

00:07:47.444 --> 00:07:51.673
푸른색이라고 하는 게 자유롭고 꿈,
이상,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

00:07:51.773 --> 00:07:53.353
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

00:07:53.453 --> 00:07:57.741
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
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.

00:07:57.841 --> 00:08:01.065
거룩한 나의 일과가 바로 뭐냐면
푸른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.

00:08:01.165 --> 00:08:05.801
다시 말하면 생활이 슬퍼도, 즉
다시 말하면 일제 강점기라든가

00:08:05.901 --> 00:08:08.114
아니면 가난일 수도 있는 거겠고.

00:08:08.214 --> 00:08:11.374
그런 상황 속에서도 푸른
별을 바라보는 것은

00:08:11.474 --> 00:08:15.038
항상 나의 숭고한
일이고, 기쁜 일이다.

00:08:15.138 --> 00:08:18.831
그게 바로 거룩한 나의 일과이다,
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였습니다.

00:08:18.931 --> 00:08:20.985
들길에 서서 뭘 생각합니까?

00:08:21.085 --> 00:08:22.372
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.

00:08:22.472 --> 00:08:25.420
시련 있어, 뼈에 저리도록
생활은 슬퍼도 좋다.

00:08:25.520 --> 00:08:30.541
시련이 있어, 그렇지만 항상 꿈과
이상을 가지고 있는 삶을 생각한다

00:08:30.641 --> 00:08:31.724
이런 뜻이겠죠.

00:08:31.824 --> 00:08:33.714

그게 바로 이제 화자의
삶일 거예요.

00:08:33.814 --> 00:08:38.149
이 신석정 시인이라고 하는
개인의 시의 경향 이런 것들은

00:08:38.249 --> 00:08:39.708
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.

00:08:39.808 --> 00:08:43.104
그러나 이 사람이 나오는 시를
참고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될 텐데.

00:08:43.204 --> 00:08:46.855
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석정
시인은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

00:08:46.955 --> 00:08:48.626
시인이더라, 이거
하나 기억해 두시고.

00:08:48.726 --> 00:08:51.738
또 하나는 뭐냐면 전원에
대한 시를 많이 썼다,

00:08:51.838 --> 00:08:54.706
이렇게 생각해두시면 되겠습니다.

00:08:54.806 --> 00:08:57.161
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볼까요?

00:08:57.261 --> 00:08:59.993
두 번째 작품을 볼까요?

00:09:00.093 --> 00:09:04.857
두 번째는 고재종의 감나무 그늘
아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.

00:09:04.957 --> 00:09:08.054
여러분, 이거를 보면 우리가
미리 얘기하면 뭐냐면

00:09:08.154 --> 00:09:11.074
이별이라고 하는 주제를
드러내고 있습니다.

00:09:11.174 --> 00:09:16.052
그런데 그 이별이라는 주제를 드러낼
때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

00:09:16.152 --> 00:09:17.355
이별을 드러내고 있어요.

00:09:17.455 --> 00:09:18.840
선생님, 그걸 어떻게 알아요?

00:09:18.940 --> 00:09:20.563
다 알죠, 저 김태동입니다.

00:09:20.663 --> 00:09:22.147

그런 뜻이 아니고요.

00:09:22.247 --> 00:09:23.699
아까 우리가 봤잖아요.

00:09:23.799 --> 00:09:27.175
3번 문제 선택지 보기에서 이
내용을 이미 봤습니다, 여러분.

00:09:27.275 --> 00:09:28.332
이미 봤어요.

00:09:28.432 --> 00:09:30.494
그러니까 제가 정말 뛰어나게 천재,

00:09:30.594 --> 00:09:33.636
물론 뭐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
있지만, 천재가 아니고요.

00:09:33.736 --> 00:09:35.292
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.

00:09:35.392 --> 00:09:38.392
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
내용들이 어떤 내용일까

00:09:38.492 --> 00:09:40.384
이렇게 짐작을 하시면 되겠죠.

00:09:40.484 --> 00:09:41.347
가볼까요?

00:09:41.447 --> 00:09:44.687
제목이 감나무 그늘 아래입니다.

00:09:44.787 --> 00:09:49.969
감나무 잎새를 흔드는
게 어찌 바람뿐이랴.

00:09:50.069 --> 00:09:51.281
설의적 표현이죠.

00:09:51.381 --> 00:09:52.669
어찌 바람뿐이겠느냐.

00:09:52.769 --> 00:09:57.315
바람은 그러면 뭐냐면 잎새를 흔드는
존재가 바람일 것 같아요, 그렇죠?

00:09:57.415 --> 00:10:01.881
감나무 잎새를 흔드는
것이 어찌 바람뿐이랴.

00:10:01.981 --> 00:10:07.402
그다음,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
것이 어찌 햇살뿐이랴.

00:10:07.502 --> 00:10:09.193
햇살은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.

00:10:09.293 --> 00:10:12.152

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,
위아래 두 가지가

00:10:12.252 --> 00:10:14.373
똑같은 구조라고 하는 걸
확인할 수는 있어요.

00:10:14.473 --> 00:10:15.667
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.

00:10:15.767 --> 00:10:21.262
대구법도 가능하지만, 통사
구조 반복 이것도 가능하죠.

00:10:21.362 --> 00:10:25.450
통사 구조 반복이라고
하는 것도 똑같습니다.

00:10:25.550 --> 00:10:30.253
그러면 여기 나오는 바람과
햇살이라고 하는 것이

00:10:30.353 --> 00:10:35.151
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것이 바람이고,
바람뿐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고.

00:10:35.251 --> 00:10:38.113
반짝이게 하는 건 어찌
햇살뿐이랴 했으니까

00:10:38.213 --> 00:10:41.398
햇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
반짝이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.

00:10:41.498 --> 00:10:46.209
왠지 이 흔드는 것과 반짝인다는
것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것 같죠.

00:10:46.309 --> 00:10:49.586
제가 어떤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지
않고 문제를 풀고 싶은데.

00:10:49.686 --> 00:10:52.983
이게 또 수업이다 보니까
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피드백으로

00:10:53.083 --> 00:10:54.550
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?

00:10:54.650 --> 00:10:57.448
대답 듣고 질문하고, 대답
듣고 이러면 훨씬 더 이제

00:10:57.548 --> 00:11:00.162
여러분의 생각, 사고력을
높일 수 있겠지만,

00:11:00.262 --> 00:11:03.732
그게 지금 현실적으로
인강에서는 좀 어려우니까

00:11:03.832 --> 00:11:06.048
제가 생각할 시간을 잠깐
드릴게요, 여러분.

00:11:06.148 --> 00:11:08.477
감나무 잎새를 흔드는
것이 바람뿐이랴.

00:11:08.577 --> 00:11:12.366
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
햇살뿐이랴라고 얘기했는데.

00:11:12.466 --> 00:11:14.916
이 흔든다는 것과 반짝인다는 것이

00:11:15.016 --> 00:11:16.830
서로 뭔가 좀 대립되는
의미인 것 같죠?

00:11:16.930 --> 00:11:20.017
이게 어떤 의미일까요, 여러분?

00:11:20.117 --> 00:11:22.956
이런 말, 이런 생각을
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.

00:11:23.056 --> 00:11:25.873
잠깐 멈췄다가 보셔도
될 것 같아요.

00:11:25.973 --> 00:11:29.303
흔들기도 하고, 반짝이게도
하고 이런 거니까.

00:11:29.403 --> 00:11:32.611
막 오만 가지 생각들이 서로 반대되는
생각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.

00:11:32.711 --> 00:11:35.053
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
것 같은데, 얘들아.

00:11:35.153 --> 00:11:39.147
화자가 뭔가 내적 갈등을 하고
있다, 뭔가 괴로워하고 있다.

00:11:39.247 --> 00:11:41.406
머릿속으로 복잡한
생각을 하고 있다.

00:11:41.506 --> 00:11:44.354
좀 어려운 말로 내적
동요를 일으키고 있다.

00:11:44.454 --> 00:11:47.304
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
것 같지 않습니까?

00:11:47.404 --> 00:11:49.893
이런 생각도 들고, 이런
생각도 드는 거니까요.

00:11:49.993 --> 00:11:51.320
그다음.

00:11:51.420 --> 00:11:55.651
아까는 오색 딱따구리가
따다다닥 찍고 가더니.

00:11:55.751 --> 00:11:58.936
봐 봐, 시방은 청설모가
쪼르르 타고 내려오네.

00:11:59.036 --> 00:12:02.945
잘 봐요, 오색 딱따구리라고 하는
것과 청설모라고 하는 것이, 보세요.

00:12:03.045 --> 00:12:05.833
위에 나오는 흔드는 게 바람뿐이랴.

00:12:05.933 --> 00:12:09.375
아니다, 오색 딱따구리도 그렇고
청설모도 그렇다, 이런 거고.

00:12:09.475 --> 00:12:12.798
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
햇살뿐만 아니라 그래, 봐봐.

00:12:12.898 --> 00:12:15.998
오색 딱따구리도 그렇고
청설모도 역시 마찬가지로

00:12:16.098 --> 00:12:18.930
반짝이게 하는 존재야, 이렇게
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

00:12:19.030 --> 00:12:21.207
아까 위에 문장 구조를
보셔야 되는데.

00:12:21.307 --> 00:12:24.653
그러니까 결국 감나무 잎새를
흔들고 반짝이게 하는 건

00:12:24.753 --> 00:12:28.631
오색 딱따구리하고 청설모도 역시
마찬가지로 흔들리게도 하고

00:12:28.731 --> 00:12:30.466
반짝이게도 한다, 이런 뜻입니다.

00:12:30.566 --> 00:12:35.144
아무튼 지금 이 화자는 뭘 보고 있냐면
감나무 주변을 관찰하고 있다,

00:12:35.244 --> 00:12:36.558
이렇게만 생각해 볼게요.

00:12:36.658 --> 00:12:38.392
감나무 주변을 관찰하고 있다.

00:12:38.492 --> 00:12:39.987

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돼요.

00:12:40.087 --> 00:12:42.078
이게 뭐다, 이건 뭐 시련이다.

00:12:42.178 --> 00:12:45.526
이렇게 무조건 하실 필요 없고,
나중에 문제가 나오면, 얘들아.

00:12:45.626 --> 00:12:49.245
문제가 나오면 그 안에서 그
기준으로 판단만 하셔야죠.

00:12:49.345 --> 00:12:52.535
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떤 답을 딱
설정해 놓고 문제로 돌아가면

00:12:52.635 --> 00:12:53.799
절대 안 됩니다.

00:12:53.899 --> 00:12:58.630
대략적으로, 대략이라는 말이
전체적으로 절대 틀리지 않을 말.

00:12:58.730 --> 00:13:02.139
틀리지 않을 정도의 말만
만들어 놓고 가면 돼요.

00:13:02.239 --> 00:13:06.437
틀리지 않을 정도의 말이라고
하면 뭔가 흔들고 반짝이는 게

00:13:06.537 --> 00:13:08.937
오색 딱따구리뿐만 아니라
청설모도 있구나.

00:13:09.037 --> 00:13:12.166
바람뿐만 아니라, 햇살뿐만 아니라
오색 딱따구리와 청설모가

00:13:12.266 --> 00:13:15.477
흔드는 존재이기도 하고, 반짝이는
존재인 것 같기도 하구나.

00:13:15.577 --> 00:13:18.670
이게 내적 갈등이라는
말을 몰라도 되고요.

00:13:18.770 --> 00:13:20.923
그다음에 이게 시련이다,
이게 긍정이다.

00:13:21.023 --> 00:13:22.542
이런 걸 몰라도 됩니다.

00:13:22.642 --> 00:13:26.373
나중에 문제에서 질문을 하면 그때
확인하면 되는 거예요, 아시겠죠?

00:13:26.473 --> 00:13:29.122
그게 국어 문제를 푸는

방법이에요, 여러분.

00:13:29.222 --> 00:13:32.377
국어가 상당히 주관을 가장한
객관적인 시험일 수밖에 없거든요.

00:13:32.477 --> 00:13:36.452
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주관적으로
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

00:13:36.552 --> 00:13:37.772
그다음 보세요.

00:13:37.872 --> 00:13:41.164
사랑이 끝났기로소니, 사랑이
지금 끝났다는 거죠.

00:13:41.264 --> 00:13:44.983
그러면 여기 위에 네 줄까지는
지금 현재 이별 상황에서

00:13:45.083 --> 00:13:47.602
화자가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.

00:13:47.702 --> 00:13:51.041
흔들고 반짝이게 하는 게 여러
개구나, 이렇게 생각한 거고.

00:13:51.141 --> 00:13:53.764
사랑이 끝났기로소니, 끝났어요.

00:13:53.864 --> 00:13:56.679
끝났기로소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.

00:13:56.779 --> 00:13:58.211
또 한 번 설의법이죠.

00:13:58.311 --> 00:14:00.121
사랑은 끝났어, 지금
현재 이별 상태야.

00:14:00.221 --> 00:14:04.396
그러나 그리움이라고 하는
것이 계속 나타난다.

00:14:04.496 --> 00:14:06.257
이렇게 얘기하고 있는
거죠, 그렇죠?

00:14:06.357 --> 00:14:09.641
사랑이 끝났어도 그 사람에 대한
그리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.

00:14:09.741 --> 00:14:16.295
그 그리움이 날로 자라면, 날로 커지면
주먹 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.

00:14:16.395 --> 00:14:20.193
땡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
딱 먹으면 되게 떫은 감을

00:14:20.293 --> 00:14:21.921
바로 땡감이라고 하거든요.

00:14:22.021 --> 00:14:27.264
그 땡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
그리움이 커져 가면, 봐봐.

00:14:27.364 --> 00:14:30.186
그리움이 날로 자라면
땡감이 되는 거니까.

00:14:30.286 --> 00:14:34.726
이 그리움을 함축하고 있는 게 바로
뭐냐면 땡감이라고 하는 소재가

00:14:34.826 --> 00:14:37.114
바로 그리움이 점점
깊어 가고 있다.

00:14:37.214 --> 00:14:41.124
그리움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
관념을 땡감이라고 하는

00:14:41.224 --> 00:14:44.280
구체적 사물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,
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

00:14:44.380 --> 00:14:45.981
됐니?

00:14:46.081 --> 00:14:48.410
그다음.

00:14:48.510 --> 00:14:55.162
때로는 머리 위로 흰 구름 이고,
때로는 온종일 장대비 맞아 보게.

00:14:55.262 --> 00:15:00.974
~해보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,
이걸 대화체라고 합니다.

00:15:01.074 --> 00:15:03.007
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해요.

00:15:03.107 --> 00:15:05.406
청자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
나오지는 않았지만,

00:15:05.506 --> 00:15:08.953
말을 건네는 말투로
얘기하고 있잖아요.

00:15:09.053 --> 00:15:12.844
때로는 온종일 장맛비 한번,
장대비 한번 맞아 봐.

00:15:12.944 --> 00:15:14.405
이렇게 말을 건넸잖아요.

00:15:14.505 --> 00:15:17.474
말을 건네는 방식이니까

대화체가 되는 거죠.

00:15:17.574 --> 00:15:19.920
그러면 때로는 머리 위로
흰 구름이 일어나고,

00:15:20.020 --> 00:15:22.099
때로는 온종일 장대비를 맞아 보게.

00:15:22.199 --> 00:15:23.444
이게 바로 뭘까?

00:15:23.544 --> 00:15:25.540
이별까지 나눈 마당에, 이별했어요.

00:15:25.640 --> 00:15:29.057
기다림은 웬 것이랴만,
기다림은 웬 것이겠지만.

00:15:29.157 --> 00:15:32.163
이별했으면 기다리지 말아야 되지만.

00:15:32.263 --> 00:15:35.991
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, 평상
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있죠?

00:15:36.091 --> 00:15:39.526
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,
밤이면 잠 뒤척여요.

00:15:39.626 --> 00:15:41.583
그 이유는 바로 그리움 때문이겠죠?

00:15:41.683 --> 00:15:43.909
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.

00:15:44.009 --> 00:15:45.187
산이 울고 있대요.

00:15:45.287 --> 00:15:47.414
화자도 지금, 그러니까 봐봐.

00:15:47.514 --> 00:15:50.937
산이 울고 있다고 하면
의인법이 확실하게 쓰였잖아요.

00:15:51.037 --> 00:15:52.686
그러면 머릿속에 하나만 더
고민해야 돼, 항상.

00:15:52.786 --> 00:15:55.146
의인법이 쓰였다면 하나만
더 고민합시다.

00:15:55.246 --> 00:15:59.792
뭘 고민하냐면 화자의 정서와 똑같은지
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

00:15:59.892 --> 00:16:04.029
화자의 정서도 마찬가지로 울고
싶다면 산이 우는 소리라고 하면

00:16:04.129 --> 00:16:07.000
감정 이입이 쓰일 거니까.

00:16:07.100 --> 00:16:10.597
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,
새벽이면 퍼뜩 깨어나

00:16:10.697 --> 00:16:13.062
계곡 물소리도 한번 들어 보게.

00:16:13.162 --> 00:16:17.538
그러면 흰 구름도 보라 그랬고,
장대비도 맞아 보라 그랬고,

00:16:17.638 --> 00:16:20.516
새벽이면 깨어나서 물소리도
들어보라 그랬고.

00:16:20.616 --> 00:16:25.721
그게 바로 뭔지를 우리가
이해를 잘 못 하겠죠?

00:16:25.821 --> 00:16:29.275
얘가 지금 계속 밤마다
잠을 뒤척이고 있고,

00:16:29.375 --> 00:16:32.207
산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,
지금 계속 한마디로 얘기하면

00:16:32.307 --> 00:16:36.123
이 모든 행위들은 바로 뭐냐면
무엇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

00:16:36.223 --> 00:16:40.025
촉발된 거냐면 그리움이라고 하는
행위 때문에 촉발된 거예요.

00:16:40.125 --> 00:16:41.187
그리움 때문에.

00:16:41.287 --> 00:16:44.517
그리움 때문에 머리 흰 구름 이고

00:16:44.617 --> 00:16:48.172
그다음에 장대비도 한번 맞아 봐야
되고,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.

00:16:48.272 --> 00:16:50.153
그러면 뭔가 깨닫게
될 거라는 얘기야.

00:16:50.253 --> 00:16:52.133
아직 깨달음이 안
나왔어요, 어렵죠?

00:16:52.233 --> 00:16:55.206
조금만 더 갑니다.

00:16:55.306 --> 00:16:59.190

그 기다림이, 그 그리워하는
기다림이 날로 익으니

00:16:59.290 --> 00:17:02.824
그 서러움까지 익어서,
이별의 서러움까지 익어서

00:17:02.924 --> 00:17:05.683
저 짙푸른 감들이
바로 땡감이었잖아요.

00:17:05.783 --> 00:17:12.004
그런데 그 감들이 마침내 형형 등불을
밝힐 것이라면, 칠판 잠깐 볼게요.

00:17:12.104 --> 00:17:17.686
이 땡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
형형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

00:17:17.786 --> 00:17:20.274
밝은 등불처럼 된다는 거예요.

00:17:20.374 --> 00:17:24.107
그 밝은 등불이 된다는
얘기는 감이 익어간 거죠.

00:17:24.207 --> 00:17:26.402
완전히 익어간 거를 얘기하는 거야.

00:17:26.502 --> 00:17:30.367
그러면 앞에 나오는 과정을
다시 한번 볼까요?

00:17:30.467 --> 00:17:34.316
때로는 머리 위에 흰 구름 이고
때로는 온종일 장대비를 맞는 모습,

00:17:34.416 --> 00:17:39.958
기다리는 모습, 뒤척이는 모습,
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기도 하고,

00:17:40.058 --> 00:17:44.941
새벽에 물소리도 들어보게 된다면
그 기다림이 날로 익어서

00:17:45.041 --> 00:17:46.047
뭐가 되는 거야?

00:17:46.147 --> 00:17:48.114
형형 등불이 된다는 거잖아요.

00:17:48.214 --> 00:17:49.114
보세요.

00:17:49.214 --> 00:17:54.500
이 땡감이 형형 등불이
되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뭐냐면

00:17:54.600 --> 00:18:00.145
아까 앞에 나왔던 흰 구름 이고,
온종일 장대비 맞아 보고,

00:18:00.245 --> 00:18:03.178
산이 우는 소리를 듣고, 그다음에
계곡 물소리라고 하는 거

00:18:03.278 --> 00:18:07.285
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뭐냐면
땡감이 아주 붉은 감으로

00:18:07.385 --> 00:18:09.184
익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.

00:18:09.284 --> 00:18:11.908
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
짐작해야 되는 게 뭐냐?

00:18:12.008 --> 00:18:14.242
짐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,
이쪽으로 올게요.

00:18:14.342 --> 00:18:20.013
이게 바로 이 과정이, 땡감이
형형 등불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

00:18:20.113 --> 00:18:26.007
바로 뭐냐면 이별 이후의 과정이라고
하는 거예요, 이별 이후의 과정.

00:18:26.107 --> 00:18:27.724
아까 얘기했잖아요.

00:18:27.824 --> 00:18:31.317
이 자연물을 통해서 이별 이후의
과정이 나와 있으니까.

00:18:31.417 --> 00:18:33.636
그럼 이별 후의
과정이, 질문할게요.

00:18:33.736 --> 00:18:35.298
긍정적이다, 부정적이다?

00:18:35.398 --> 00:18:38.668
이별 후의 과정이 긍정적인
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.

00:18:38.768 --> 00:18:42.334
왜? 그 땡감이라고 하는 게
그리움이 깊어져서 땡감이 됐잖아.

00:18:42.434 --> 00:18:44.608
이별 후에 그리움이
깊어져서 땡감이 됐지.

00:18:44.708 --> 00:18:48.019
그게 형형 등불이 됐으니까
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.

00:18:48.119 --> 00:18:50.203
형형 등불 플러스로 바뀌었잖아.

00:18:50.303 --> 00:18:53.780
그러니까 이별 후의 모습도 역시
플러스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겠지.

00:18:53.880 --> 00:18:58.148
이별 후의 모습을 부정적이고
좌절하고 절망하고,

00:18:58.248 --> 00:19:02.431
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
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.

00:19:02.531 --> 00:19:05.990
여기 나오는 내용은
조금 이따 정리해볼게.

00:19:06.090 --> 00:19:10.367
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
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.

00:19:10.467 --> 00:19:13.523
어찌 부시지 않으랴, 하늘이
어찌 눈부시지 않으랴.

00:19:13.623 --> 00:19:17.829
그럼 이쪽으로 와서 이별 후의
긍정적인 모습은 바로 뭐냐면

00:19:17.929 --> 00:19:20.175
이별 후의 긍정적인 모습은, 이건
답을 제가 쓰면 안 되지만.

00:19:20.275 --> 00:19:22.322
뒤에 답이 나올 겁니다.

00:19:22.422 --> 00:19:24.598
나올 거지만, 여기
그냥 긍정적인 거구나.

00:19:24.698 --> 00:19:26.477
여기까지만 여러분은 이해하면 돼요.

00:19:26.577 --> 00:19:29.095
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.

00:19:29.195 --> 00:19:31.796
저는 그런데 수업이니까
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

00:19:31.896 --> 00:19:35.105
나중에 문제 풀 때 여기에서
긍정적인 게 나오면 맞겠구나,

00:19:35.205 --> 00:19:36.621
적절하겠구나, 이렇게만
생각하면 되지.

00:19:36.721 --> 00:19:40.108
이게 뭐다, 이렇게 얘기할 필요까지는
없지만, 저는 수업이니까.

00:19:40.208 --> 00:19:44.593
이별 후에 정신적으로 한 단계 더
나아갈 수 있는 성숙의 과정이구나.

00:19:44.693 --> 00:19:47.454
이렇게 이해할 수
있는 거예요, 됐니?

00:19:47.554 --> 00:19:52.083
그러면 문제를 보시면서 다시
한번 확인을 좀 해볼 건데.

00:19:52.183 --> 00:19:53.816
(나) 작품이 좀 어려웠죠?

00:19:53.916 --> 00:19:56.415
(나) 작품은 이별이라고,
여기 잠깐 놔둘까요?

00:19:56.515 --> 00:20:00.305
놔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
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20:00.405 --> 00:20:04.236
문제 어휘 풀이, 지문
소화제 보겠습니다.

00:20:04.336 --> 00:20:07.881
(가)에서 OO은 암담한
현실을 나타내고 있다.

00:20:07.981 --> 00:20:11.390
암담한 현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
제목이 저문 들길이잖아요.

00:20:11.490 --> 00:20:14.073
저문 들길에 서서
푸른 별을 바라보자.

00:20:14.173 --> 00:20:17.770
저문 들길이 바로 암담한
현실을 나타내고 있죠.

00:20:17.870 --> 00:20:20.390
(가)와 (나)의 화자는 모두
겉으로 드러나 있다고 하면

00:20:20.490 --> 00:20:23.333
여러분 딱 두 글자만 찾으면 돼요.

00:20:23.433 --> 00:20:26.364
나 또는 우리라는 글자만
찾으면 됩니다.

00:20:26.464 --> 00:20:29.528
(가)에서는 두 번째 줄에 내라는
말이 나왔으니까 적절하죠.

00:20:29.628 --> 00:20:32.265
그런데 (나) 작품에서는
나오지 않았어요.

00:20:32.365 --> 00:20:34.253
그러니까 X가 정답이네요.

00:20:34.353 --> 00:20:36.480
나 또는 우리라는
단어만 찾으면 돼요.

00:20:36.580 --> 00:20:39.077
(나)에서 1~4행,
9~10행에서는 표현 방법으로.

00:20:39.177 --> 00:20:41.518
당연히 설의법이 쓰였겠죠.

00:20:41.618 --> 00:20:45.089
설의법을 사용해서 독자의
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

00:20:45.189 --> 00:20:46.878
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.

00:20:46.978 --> 00:20:49.796
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20:49.896 --> 00:20:52.528
(가)와 (나)의 화자의
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

00:20:52.628 --> 00:20:54.025
한번 골라보라고 했는데.

00:20:54.125 --> 00:20:56.913
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이 처한
상황에 대응하고 있다.

00:20:57.013 --> 00:20:58.450
1번이 답이에요.

00:20:58.550 --> 00:20:59.538
확인해 볼까요?

00:20:59.638 --> 00:21:04.202
(가)에서 보니까 뭐냐면 뼈저리도록
생활은 슬퍼도 괜찮아, 좋아.

00:21:04.302 --> 00:21:05.528
그러니까 긍정적 자세겠죠.

00:21:05.628 --> 00:21:08.438
그다음에 (나) 작품은 지금
현재 이별 상황이잖아요.

00:21:08.538 --> 00:21:13.098
이별 상황이지만, 그 이별 상황이
바로 땡감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,

00:21:13.198 --> 00:21:15.668
그 땡감이라고 하는 것이
당연히 뭐로 바뀌었냐면

00:21:15.768 --> 00:21:19.332
형형 등불로 바뀌었으니까 긍정적인
상황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

00:21:19.432 --> 00:21:22.934
본인이 생각하는 거니까 자신이
처한 상황에 긍정적 자세로

00:21:23.034 --> 00:21:25.025
대응하고 있다는 게 맞죠.

00:21:25.125 --> 00:21:27.584
다른 사람과 자신의
처지를 비교하고 있다.

00:21:27.684 --> 00:21:29.695
다른 대상과 비교하고
있는 건 없었고.

00:21:29.795 --> 00:21:30.906
과거 회상 어조.

00:21:31.006 --> 00:21:32.754
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건 없었죠.

00:21:32.854 --> 00:21:37.692
대화체를 활용했다고 하면 대화체는
(나) 작품은 대화체가 맞아요.

00:21:37.792 --> 00:21:39.558
그러나 대상과의 정서적 합일.

00:21:39.658 --> 00:21:41.004
이것도 가능하겠네요.

00:21:41.104 --> 00:21:43.765
대상과의 정서적 합일을
이루고 있다고 하는 게

00:21:43.865 --> 00:21:45.235
사실은 이게 좀 모호한데.

00:21:45.335 --> 00:21:50.081
왜 그러냐면 청자가 청자에게
말을 건네고 있잖아요.

00:21:50.181 --> 00:21:55.522
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데,
청자가 화자와 생각이 똑같다.

00:21:55.622 --> 00:21:57.739
대상과의 정서적 합의를
이루고 있다.

00:21:57.839 --> 00:21:59.082
이게 좀 애매하죠.

00:21:59.182 --> 00:22:00.674
그런데 이렇게는 가능해요.

00:22:00.774 --> 00:22:02.506

대화체를 활용했다는 건 맞는데.

00:22:02.606 --> 00:22:05.722
대상과의 정서적 합일이라고
하면 중간에 뭐가 쓰였어요?

00:22:05.822 --> 00:22:09.450
산이 우는 소리라고 해서 감정
이입이 쓰인 부분이 나왔죠.

00:22:09.550 --> 00:22:12.420
정서적 합일을 이루고 있다는
것은 대화체가 아니라

00:22:12.520 --> 00:22:15.385
감정 이입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.

00:22:15.485 --> 00:22:17.359
이게 또 연결 관계도 좀
애매하네요, 그렇죠?

00:22:17.459 --> 00:22:21.731
아무튼 (나) 작품은 대화체는
쓰였지만, 대화체 활용해서

00:22:21.831 --> 00:22:24.296
그것 자체가 정서 합일이
아니고 대화체도 쓰였고,

00:22:24.396 --> 00:22:28.059
감정 이입을 통해서 정서 합일을
이루고 있다, 이게 맞죠.

00:22:28.159 --> 00:22:30.108
내면 의식이 변화하는 과정.

00:22:30.208 --> 00:22:33.357
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면 시간
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돼요.

00:22:33.457 --> 00:22:34.915
아침, 점심, 저녁.

00:22:35.015 --> 00:22:38.487
봄, 여름, 가을 이런 식으로
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.

00:22:38.587 --> 00:22:39.652
적절하지 않습니다.

00:22:39.752 --> 00:22:41.861
정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.

00:22:41.961 --> 00:22:45.142
2번, 푸른 별과 형형
등불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

00:22:45.242 --> 00:22:47.005
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는데.

00:22:47.105 --> 00:22:51.880

푸른 별과 형형 등불은 모두 조화와
균형이라고 하는 시의 주제.

00:22:51.980 --> 00:22:55.423
이 작품에서 (가) 작품과 (나)
작품이 조화와 균형이라는

00:22:55.523 --> 00:22:56.925
주제 의식이었나요?

00:22:57.025 --> 00:22:59.174
아니죠, 힘들지만 희망을 갖는다.

00:22:59.274 --> 00:23:02.287
(나) 작품에도 이별이지만,
긍정적으로 인식한다.

00:23:02.387 --> 00:23:03.850
이 정도의 내용이 나왔죠.

00:23:03.950 --> 00:23:06.607
그러니까 조화와 균형이라는
말 자체가 어렵네요.

00:23:06.707 --> 00:23:09.761
푸른 별은 화자의 결심을
드러내는 행위의 대상이며.

00:23:09.861 --> 00:23:10.821
화자가 어떤 결심을 했다.

00:23:10.921 --> 00:23:12.185
푸른 별을 바라보자.

00:23:12.285 --> 00:23:13.576
가능합니다, 왜?

00:23:13.676 --> 00:23:16.540
푸른 별을 바라보자라고
얘기했으니까 어떤 결심을

00:23:16.640 --> 00:23:18.325
드러내고 있는 건 맞아요.

00:23:18.425 --> 00:23:21.068
형형 등불은 화자가 기다리는
그리움의 대상이다.

00:23:21.168 --> 00:23:25.728
화자가 형형 등불을 기다리고
있었던 건 아니죠.

00:23:25.828 --> 00:23:29.742
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
깊어져서, 기다림이 깊어져서

00:23:29.842 --> 00:23:32.762
땡감이 됐는데 그 땡감이라고
하는 게 형형 등불로

00:23:32.862 --> 00:23:37.412

바뀐 것뿐이니까 기다리는
그리움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.

00:23:37.512 --> 00:23:39.251
푸른 별은 자연에
동화되었다, 틀렸습니다.

00:23:39.435 --> 00:23:41.892
자연과 동화된 모습이 아니에요.

00:23:41.992 --> 00:23:44.497
그다음에 화자가 기대하는
미래, 틀렸죠.

00:23:44.597 --> 00:23:47.112
푸른 별은 생명에 대한
경외심, 틀렸어요.

00:23:47.212 --> 00:23:50.056
경외심은 존경하면서
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.

00:23:50.156 --> 00:23:53.018
형형 등불은 고통을 이겨내기
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.

00:23:53.118 --> 00:23:54.923
이것 때문에 고통을
이겨내는 거 아니에요.

00:23:55.023 --> 00:23:58.102
그다음에 어두운 현실 속에서,
너무 정확하게 나오네요.

00:23:58.202 --> 00:23:59.588
푸른 별을, 왜?

00:23:59.688 --> 00:24:01.917
저문 들길이라고 하는 게
어두운 현실이잖아요.

00:24:02.017 --> 00:24:04.484
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을
나타낸다, 맞고요.

00:24:04.584 --> 00:24:08.340
형형 등불은 화자에게 긍정적
깨달음을 주는 거죠.

00:24:08.440 --> 00:24:13.370
그래, 이별을 내가 지금
했지만, 저 땡감이 저런 과정,

00:24:13.470 --> 00:24:19.056
이별, 잊기 위한 기다림의 과정을
통해서 형형 등불이 된 것처럼

00:24:19.156 --> 00:24:22.274
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별이라고
하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,

00:24:22.374 --> 00:24:24.609
이별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겠다.

00:24:24.709 --> 00:24:29.817
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긍정적인
깨달음을 주는 존재다, 적절하겠죠.

00:24:29.917 --> 00:24:31.604
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.

00:24:31.704 --> 00:24:33.960
3번 볼게요.

00:24:34.060 --> 00:24:36.141
적절하지 않은 것을
골라보라고 했는데.

00:24:36.241 --> 00:24:37.599
유추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왔습니다.

00:24:37.699 --> 00:24:39.450
이쪽으로 다시 한번 올게요.

00:24:39.550 --> 00:24:42.394
땡감과 형형 등불을 통해서
이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.

00:24:42.494 --> 00:24:43.700
이게 바로 유추가 쓰인 거예요.

00:24:43.800 --> 00:24:45.261
그것 때문에 안 지웠어요.

00:24:45.361 --> 00:24:48.191
이쪽으로 와서, 이거
하나하나 이제 선택지를 보고

00:24:48.291 --> 00:24:50.964
그 부분이 이런 의미로
쓰였는지 확인만 하면 되죠.

00:24:51.064 --> 00:24:55.213
화자는 흔들리는 감나무와 이별을
겪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.

00:24:55.313 --> 00:24:59.683
첫 번째 보니까 감나무 잎새를
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.

00:24:59.783 --> 00:25:02.584
감나무 잎새를 흔든다.

00:25:02.684 --> 00:25:07.503
흔들고 있는 모습이 이별을 겪은
자신의 모습과 동일시되고 있는지

00:25:07.603 --> 00:25:08.738
확인해 보면 되겠죠.

00:25:08.838 --> 00:25:13.054
감나무가 막 흔들리는 모습이 결국은

감나무의 땡감이라고 하는 게

00:25:13.154 --> 00:25:16.192
형형 등불로 바뀌는 것이
이별을 겪은 나의 모습이

00:25:16.292 --> 00:25:20.503
바로 뭐냐면 내적인 성숙으로
바뀌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.

00:25:20.603 --> 00:25:24.060
그러니까 흔들리는 모습이 이별을
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과

00:25:24.160 --> 00:25:26.072
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.

00:25:26.172 --> 00:25:29.544
2번, 오색 딱따구리는 감나무를
흔들고 가는 것으로, 맞죠.

00:25:29.644 --> 00:25:31.721
이것은 본문에 그냥 보면 되겠고.

00:25:31.821 --> 00:25:34.109
이별로 인한 화자의 내적
동요와 관련 있다, 왜?

00:25:34.209 --> 00:25:37.205
흔든다는 것과 내적
동요가 연결이 되니?

00:25:37.305 --> 00:25:38.632
연결되잖아.

00:25:38.732 --> 00:25:40.505
그럼 확인하면 되겠죠.

00:25:40.605 --> 00:25:44.438
땡감이 커 가는 것은 이별 후에 남은
화자의 그리움이 심화되고 있다.

00:25:44.538 --> 00:25:48.937
땡감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
그 그리움이 날로 자라면

00:25:49.037 --> 00:25:53.771
주먹 송이처럼 커서 갈 땡감이라고
했으니까 그대로 땡감이

00:25:53.871 --> 00:25:58.011
커가는 게 그리움이 점점 커가고 있다는
게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맞죠.

00:25:58.111 --> 00:26:01.865
㉣ 보시면 흰 구름 이고
장대비 맞아 보게.

00:26:01.965 --> 00:26:06.610
땡감이 익기 위해 거치는 과정은
그리움이 아물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

00:26:06.710 --> 00:26:08.239
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.

00:26:08.339 --> 00:26:09.350
가능할 수 있죠.

00:26:09.450 --> 00:26:10.818
㉤ 볼까요?

00:26:10.918 --> 00:26:12.556
㉤은 산이 우는 소리 들어본다.

00:26:12.656 --> 00:26:16.295
화자는 자신의 고통을 심화시키는
원인을 산이 우는 소리라는

00:26:16.395 --> 00:26:17.942
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.

00:26:18.042 --> 00:26:21.599
자신의 고통이 심해지고
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죠.

00:26:21.699 --> 00:26:25.899
고통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
오히려 산이 우는 소리를

00:26:25.999 --> 00:26:28.900
들어본다는 얘기는, 산이
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

00:26:29.000 --> 00:26:32.753
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점점
깊어지는 거고 그게 내적 성숙,

00:26:32.853 --> 00:26:36.942
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내적
성숙으로 발전되는 과정이니까요.

00:26:37.042 --> 00:26:40.689
고통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
오히려 내적인 성숙을

00:26:40.789 --> 00:26:42.450
가져오게 되는 과정.

00:26:42.550 --> 00:26:44.880
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,

00:26:44.980 --> 00:26:49.296
화자를 위로해줄 수 있는,
화자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

00:26:49.396 --> 00:26:51.302
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죠.

00:26:51.402 --> 00:26:53.385
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.

00:26:53.485 --> 00:26:56.696

산이 우는 소리, 산이라고 하는
게 긍정적이야, 부정적이야

00:26:56.796 --> 00:26:58.053
이것만 보면 되죠.

00:26:58.153 --> 00:27:01.459
긍정적 의미니까 고통을
심화시킨다는 건 부정적이잖아요.

00:27:01.559 --> 00:27:04.617
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.

00:27:04.717 --> 00:27:05.873
됐니?

00:27:05.973 --> 00:27:09.137
우선 (나) 작품이 상당히
어려워서 여러분이 좀 푸는 데

00:27:09.237 --> 00:27:11.038
어려움을 겪지 않았나
싶기도 하네요.

00:27:11.138 --> 00:27:12.780
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.

00:27:12.880 --> 00:27:15.143
정과정이라는 작품입니다.

00:27:15.243 --> 00:27:17.908
정과정이라는 작품하고
새라고 하는 작품인데요.

00:27:18.008 --> 00:27:23.763
정과정은 향가계 고려가요라고
해서 이런 형식상 특징이나

00:27:23.863 --> 00:27:27.650
이런 것보다도 내용상으로만
우리가 잘 보시면 되고.

00:27:27.750 --> 00:27:29.885
(나) 작품은 김지아
시인의 작품입니다.

00:27:29.985 --> 00:27:34.797
김지아 시인은 아시다시피
1960년대, 70년대 독재 정권에

00:27:34.897 --> 00:27:38.309
저항하면서 여러 번의 수배
생활과 그다음에 감옥까지

00:27:38.409 --> 00:27:41.151
여러 번 갔다 오신 분이죠.

00:27:41.251 --> 00:27:42.639
우선 1번 볼까요?

00:27:42.739 --> 00:27:45.228

(가)와 (나)에 대한
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27:45.328 --> 00:27:48.284
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표현상
특징을 한번 비교해 봐라.

00:27:48.384 --> 00:27:49.986
이런 뜻이 나왔습니다.

00:27:50.086 --> 00:27:53.718
그다음에 2번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
(가)와 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

00:27:53.818 --> 00:27:54.927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27:55.027 --> 00:27:57.989
(가) 작품을 설명해 볼게요.

00:27:58.089 --> 00:28:04.321
신라 노래인 향가의 잔존 형태라고
평가하기도 하는 작품이다.

00:28:04.421 --> 00:28:07.329
그래서 향가계 여요라고 합니다.

00:28:07.429 --> 00:28:10.793
향가계 고려가요의 준말,
여요라고 하죠.

00:28:10.893 --> 00:28:15.240
고려 의종 때 문인 정서가
귀양지인 동네에서 임금에게

00:28:15.340 --> 00:28:19.441
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선처를
청하기 위해 지은 겁니다.

00:28:19.541 --> 00:28:22.043
자기 억울합니다, 이렇게
얘기하는 시예요.

00:28:22.143 --> 00:28:25.448
귀양, 그러니까 유배
작품입니다, 유배 작품이에요.

00:28:25.548 --> 00:28:28.619
작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
자신의 과오 때문이 아니라

00:28:28.719 --> 00:28:30.647
주위 환경의 소산으로 보고 있다.

00:28:30.747 --> 00:28:33.864
(가) 작품을 해석할 수
있어야 됩니다, 여러분.

00:28:33.964 --> 00:28:38.192
(나) 작품은 김지아가 국가 보안법
위반으로 수감되었을 때 쓴 시다.

00:28:38.292 --> 00:28:40.666
수감되었다는 얘기는
감옥에 있다는 얘기죠.

00:28:40.766 --> 00:28:45.147
이 시에서 푹푹 찌는 더운 여름날
감옥 창살 밖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

00:28:45.247 --> 00:28:49.556
시인이 느껴야 했던 육체적 괴로움과
암울한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.

00:28:49.656 --> 00:28:51.683
그러니까 이 배경이 다 나왔어요.

00:28:51.783 --> 00:28:55.206
배경 이야기를 통해서 앞의 작품을
이해해 봐라, 이런 거고요.

00:28:55.306 --> 00:28:58.769
그다음에 ㉠과 ㉡에 대한
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.

00:28:58.869 --> 00:29:01.756
위에 나오는 접동새라고
하는 것과 밑에 나오는

00:29:01.856 --> 00:29:05.497
날으는 새라고 하는 것이,
나는 새라고 하는 것이

00:29:05.597 --> 00:29:10.780
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한번
비교 분석해 봐라 이런 문제네요.

00:29:10.880 --> 00:29:11.863
가볼게요.

00:29:11.963 --> 00:29:16.781
정과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이,
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려드릴게요.

00:29:16.881 --> 00:29:20.337
이게 향가계 고려가요라고
하는 이유가 뭐냐면

00:29:20.437 --> 00:29:23.371
제일 첫 번째, 총 11줄이거든요.

00:29:23.471 --> 00:29:27.451
11줄인데 8행과 9행이
유난히 좀 짧죠, 여러분?

00:29:27.551 --> 00:29:30.893
그걸 위로 싹 올려 버리면
총 10줄이거든요.

00:29:30.993 --> 00:29:33.997
그래서 향가의 기본
형식이 10구체거든.

00:29:34.097 --> 00:29:35.033
10구체랑 똑같은 거야.

00:29:35.133 --> 00:29:38.733
또 하나는 10구체 향가가 맨
마지막에 감탄사로 끝나거든요.

00:29:38.833 --> 00:29:42.141
아으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라
도 닦아 기다리다.

00:29:42.241 --> 00:29:43.421
그것과 비슷합니다.

00:29:43.521 --> 00:29:45.770
여기도 아으, 아소니마
이렇게 나왔으니까.

00:29:45.870 --> 00:29:48.930
그다음에 3단 구성을 취하고
있다는 것도 비슷하고요.

00:29:49.030 --> 00:29:51.462
그래서 향가계 여요라고 합니다.

00:29:51.562 --> 00:29:55.222
그다음에 보통 고려가요가
분절체, 연이 나누어져 있는데.

00:29:55.322 --> 00:29:56.747
여기는 연이 안 나눠져 있잖아요.

00:29:56.847 --> 00:29:58.444
향가도 연이 안 나눠져 있잖아요.

00:29:58.544 --> 00:30:00.491
그래서 향가계 여요라고 합니다.

00:30:00.591 --> 00:30:01.827
가볼게요.

00:30:01.927 --> 00:30:04.211
내가 님을 그리자와, 그리워하여.

00:30:04.311 --> 00:30:07.372
여러분, 이게 고전 글자가
잘 안 쓰여져 있네요.

00:30:07.472 --> 00:30:08.689
그냥 확인해 볼게요.

00:30:08.789 --> 00:30:10.889
내가 님을 그리자와, 그리워하여.

00:30:10.989 --> 00:30:13.909
우니다니, 울면서 다니니.

00:30:14.009 --> 00:30:16.679
그리워하여 울면서 다니니.

00:30:16.779 --> 00:30:20.890
산 접동새와 난 이슷
하요이다, 비슷합니다.

00:30:20.990 --> 00:30:23.915
그러면 산 접동새와 나는
비슷하다고 얘기했으니까

00:30:24.015 --> 00:30:27.294
접동새에 쓰인 것은 바로
감정 이입이 되겠죠.

00:30:27.394 --> 00:30:30.434
아니시며 거스르신 달 아으.

00:30:30.534 --> 00:30:33.806
아니시며 뭐냐면 사실이 아니며.

00:30:33.906 --> 00:30:36.214
거스르신다, 거짓인줄
아으 이런 뜻입니다.

00:30:36.314 --> 00:30:39.181
사실이 아니며, 나에
대한 말이 사실이 아니며

00:30:39.281 --> 00:30:41.536
거츠르신 아으.

00:30:41.636 --> 00:30:43.378
잔월 효성이 아라시리이다.

00:30:43.478 --> 00:30:46.724
잔월 효성이 뭐냐면,
그러니까 우리 쉽게 바꾸면

00:30:46.824 --> 00:30:48.863
천지신명이 알 것입니다,
이런 거랑 똑같거든요.

00:30:48.963 --> 00:30:53.725
잔월 효성은 조각달과
새벽별이라고 해서

00:30:53.825 --> 00:30:57.356
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대상이에요.

00:30:57.456 --> 00:31:00.372
넉시라도 님은 한데녀져라,
함께 녀져라.

00:31:00.472 --> 00:31:03.141
넋이라고 님과 한데는,
함께라는 뜻입니다.

00:31:03.241 --> 00:31:04.601
함께라는 뜻인데요.

00:31:04.701 --> 00:31:07.696
함께 녀져라, 살고 싶습니다.

00:31:07.796 --> 00:31:10.185
넉시라도 님은 한데녀져라 아으.

00:31:10.285 --> 00:31:11.753
벼기더서니 어려워요.

00:31:11.853 --> 00:31:15.036
벼기더서니는 우기던
사람이 이런 뜻입니다.

00:31:15.136 --> 00:31:18.425
우기던 사람이, 내가 죄가
있다고 우기던 사람이

00:31:18.525 --> 00:31:20.667
뉘러서니잇가, 누구란 말입니까?

00:31:20.767 --> 00:31:22.082
저 잘못 없어요.

00:31:22.182 --> 00:31:24.100
우기던 사람이 도대체
누구란 말입니까?

00:31:24.200 --> 00:31:27.165
과도 허믈도 천만 업소이다,
절대 없습니다.

00:31:27.265 --> 00:31:29.597
과도 허물도 절대 없습니다.

00:31:29.697 --> 00:31:32.622
믈힛마리신뎌, 뭇
사람들의 말뿐입니다.

00:31:32.722 --> 00:31:33.841
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.

00:31:33.941 --> 00:31:38.602
믈힛마리신뎌 슬읏븐뎌
이렇게 나오는데요.

00:31:38.702 --> 00:31:41.084
믈힛마리신뎌, 뭇
사람들의 말뿐입니다.

00:31:41.184 --> 00:31:44.012
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함일
뿐이에요, 저는 억울합니다.

00:31:44.112 --> 00:31:48.241
슬읏븐뎌, 슬픕니다,
슬퍼요 이런 뜻입니다.

00:31:48.341 --> 00:31:49.551
저는 슬퍼요.

00:31:49.651 --> 00:31:52.596
니미 나를 하마 니자시니잇가.

00:31:52.696 --> 00:31:55.338

님께서 저를 벌써 잊으셨습니까?

00:31:55.438 --> 00:31:56.980
여기에 원망도 나타나 있습니다.

00:31:57.080 --> 00:31:59.745
원망도 나타나 있지만,
원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

00:31:59.845 --> 00:32:03.778
아소 님이시여, 도람
드르샤, 다시 들으셔서

00:32:03.878 --> 00:32:07.422
괴오셔셔, 사랑해 주소서
이런 뜻입니다.

00:32:07.522 --> 00:32:08.178
억울하죠.

00:32:08.278 --> 00:32:10.720
잔월 효성한테 억울하다고
얘기했어요.

00:32:10.820 --> 00:32:14.318
그러고 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
뭇사람들의 참소 때문에

00:32:14.418 --> 00:32:16.739
제가 지금 유배지에 와
있답니다, 저 억울합니다.

00:32:16.839 --> 00:32:19.612
그러니까 저를 벌써 잊으셨어요?

00:32:19.712 --> 00:32:21.295
왜 안 불러주세요?

00:32:21.395 --> 00:32:22.886
원래 한 1년 후에
불러준다고 했거든요.

00:32:22.986 --> 00:32:24.716
그런데 안 불러줬죠.

00:32:24.716 --> 00:32:24.831
그러니까 아소 님아 다시
들으셔서 사랑해 주세요.

00:32:24.931 --> 00:32:29.414
다시 저를 받아들여주세요,
이런 뜻입니다.

00:32:32.342 --> 00:32:38.748
그다음 (나) 작품을 보시면
김지아의 새라고 하는 작품인데.

00:32:38.848 --> 00:32:39.700
아까 얘기했죠.

00:32:39.800 --> 00:32:41.525

감옥에 있는 거고.

00:32:41.625 --> 00:32:46.828
더운 여름날이고, 그다음에 바깥에
나와 푸른 하늘을 보면서

00:32:46.928 --> 00:32:49.317
쓴 거니까 얼마나
자유를 소망하겠어요?

00:32:49.417 --> 00:32:50.479
그 작품입니다.

00:32:50.579 --> 00:32:53.655
저 청청한 하늘, 맑은 하늘.

00:32:53.755 --> 00:32:57.238
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.

00:32:57.338 --> 00:33:00.484
이게 전부 다 화자가 원하는,
지향하는 바일 거 아니에요, 그렇죠?

00:33:00.584 --> 00:33:03.345
화자의 현재 처지와
대조되는 것도 가능하죠.

00:33:03.445 --> 00:33:05.783
왜 날 울리나 날으는 새여.

00:33:05.883 --> 00:33:08.488
날으는, 이건 시적 허용인데요.

00:33:08.588 --> 00:33:11.132
나는 새여 묶인 이 가슴.

00:33:11.232 --> 00:33:13.362
묶였다는 것과 이게
대조가 되는 거고.

00:33:13.462 --> 00:33:17.684
이 날으는 새라고 하는 것과 나는
새와 화자가 서로 대조되는 거죠.

00:33:17.784 --> 00:33:20.296
묶였으니까, 화자는 묶였으니까
당연히 묶였으니까

00:33:22.851 --> 00:33:25.197
이제 자유롭지 못한
거잖아요, 그렇죠?

00:33:25.297 --> 00:33:32.406
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
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.

00:33:32.506 --> 00:33:33.758
이게 너무 어렵다.

00:33:33.858 --> 00:33:35.104
어려운 것보다 좀 무섭다.

00:33:35.204 --> 00:33:40.173
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
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.

00:33:40.273 --> 00:33:41.605
살에 대한 그리움이야.

00:33:41.705 --> 00:33:45.238
살이 그립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
사람이 혼자 독방에 있었나 봐요.

00:33:45.338 --> 00:33:48.546
독방에 있으면서 누군가 독방에
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.

00:33:48.646 --> 00:33:52.789
누군가의 살이 맞대어져야지,
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

00:33:52.889 --> 00:33:54.647
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무섭겠어요.

00:33:54.747 --> 00:33:57.041
그러니까 누군가 맞댔으면 좋겠다.

00:33:57.141 --> 00:33:59.238
그게 바로 이제 살의 그리움이야.

00:33:59.338 --> 00:34:03.984
밤새워 물어뜯어도라고 하는 것은
뭐냐면 밤새워 갈망하는 거죠.

00:34:04.084 --> 00:34:07.186
누군가에 대한 갈망, 그러니까
여기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게

00:34:07.286 --> 00:34:11.606
어떤 사랑하는 사랑이 그립다는 것은
전혀 쌩뚱맞은 주제가 되는 거고,

00:34:11.706 --> 00:34:15.696
여기에서 살의 그리움이라고 하는
것은 바로 누굴 나타내는 거냐면

00:34:15.796 --> 00:34:17.543
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.

00:34:17.643 --> 00:34:19.660
그러니까 결국 뭐냐면
여기에서 나가고 싶어.

00:34:19.760 --> 00:34:23.006
자유에 대한 그리움이다, 이렇게
확대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.

00:34:23.106 --> 00:34:24.520
피만이 흐르네.

00:34:24.620 --> 00:34:26.986
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만

흐르고 있는 것 같아.

00:34:27.086 --> 00:34:29.315
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야.

00:34:29.415 --> 00:34:31.590
이게 뭐냐면 극한적인 고통이죠.

00:34:31.690 --> 00:34:35.641
감옥이라는 곳이, 얼마 전에
드라마에 슬기로운 감빵생활이라는

00:34:35.741 --> 00:34:38.424
드라마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
되게 재미있어 보이고,

00:34:38.524 --> 00:34:40.041
되게 인기도 많았잖아요.

00:34:40.141 --> 00:34:42.221
실제 감옥은 그렇지
않겠죠, 여러분.

00:34:42.321 --> 00:34:46.543
혼자 독방이라면, 독방이라고 하면
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.

00:34:46.643 --> 00:34:50.283
또 특히 감옥이라고 하는
것이 신영복 선생의

00:34:50.383 --> 00:34:54.223
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
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면

00:34:54.323 --> 00:34:58.255
감옥에 있는 사람은 차라리
여름보다 겨울을 선택한다,

00:34:58.355 --> 00:34:59.759
이런 말이 나오거든요.

00:34:59.859 --> 00:35:03.509
왜?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
있는 사람이 그냥 36.5도의

00:35:03.609 --> 00:35:06.286
하나의 열덩이로밖에
느껴지지 않는 거죠.

00:35:06.386 --> 00:35:08.796
인간적인 관계가 없어지는 거고.

00:35:08.896 --> 00:35:11.144
겨울이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
보듬고 이런 것들이

00:35:11.244 --> 00:35:13.366
하나의 체온을 나눠 가지는 거지만.

00:35:13.466 --> 00:35:15.400

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또
얼마나 힘들겠어요.

00:35:15.500 --> 00:35:19.164
그만큼 힘든 곳이 감옥이고, 그만큼
힘든 시간이 여름일 거니까.

00:35:19.264 --> 00:35:22.032
겨울이라고 안 힘들겠습니까,
요즘 같은 날씨에?

00:35:22.132 --> 00:35:25.420
땅을 기는 육신이
너를 우러러 낮이면.

00:35:25.520 --> 00:35:28.715
땅을 기는 육신이, 이게
화자의 모습인 것 같죠.

00:35:28.815 --> 00:35:32.599
화자의 모습이고, 너를 우러러,
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굴까요?

00:35:32.699 --> 00:35:33.895
새인 것 같죠?

00:35:33.995 --> 00:35:35.364
제목이 새잖아요.

00:35:35.464 --> 00:35:38.220
너를 우러러, 그러니까 너를
부러워하고 있는 거죠.

00:35:38.320 --> 00:35:44.193
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도
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

00:35:44.293 --> 00:35:51.439
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
답새라라고 얘기했는데.

00:35:51.539 --> 00:35:54.256
이 답새라가 함께하고 싶어라.

00:35:54.356 --> 00:35:58.087
이게 답새라라고 하는
말이 여기 김지아 시인이

00:35:58.187 --> 00:36:00.466
개인적으로 만든 시어라고 합니다.

00:36:00.566 --> 00:36:04.112
그래서 이 답새라라는 말이
어떤 말인지 본인 입으로

00:36:04.212 --> 00:36:07.187
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, 그냥
편하게 우리는 함께하고 싶다.

00:36:07.287 --> 00:36:08.648
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

00:36:08.748 --> 00:36:09.959
함께 답새라.

00:36:10.059 --> 00:36:12.648
함께 나가고 싶다,
이런 뜻이거든요.

00:36:12.748 --> 00:36:16.787
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
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.

00:36:16.887 --> 00:36:20.586
시뻘건 몸뚱어리라고 하는 것은
여름에 힘든 화자 자신의 몸을

00:36:20.686 --> 00:36:22.632
시뻘건 몸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.

00:36:22.732 --> 00:36:25.781
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.

00:36:25.881 --> 00:36:28.373
사슬 소리, 묶여 있는
그 사슬 있잖아요.

00:36:28.473 --> 00:36:32.899
사슬 소리여 새여
죽어 너 되는 날의.

00:36:32.999 --> 00:36:34.562
죽어서 너가 됐으면 좋겠다.

00:36:34.662 --> 00:36:36.839
죽어 너 되는 날의
길고 아득함이여.

00:36:36.939 --> 00:36:39.194
죽어서 너가 되고 싶다는
얘기는 죽어서라도

00:36:39.294 --> 00:36:43.989
자유를 찾고 싶다는 얘기겠죠.

00:36:44.089 --> 00:36:47.989
낮이 밝을수록 침침해
가는, 역설법이죠.

00:36:48.089 --> 00:36:52.510
낮이 밝을수록 침침해져간다는
얘기는 낮에 아무리 밝아도

00:36:52.610 --> 00:36:55.422
자기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
침침해져가는 거죠.

00:36:55.522 --> 00:37:01.218
넋 속에 저 짧은 여위어 가는 저
짧은 별밭을 스쳐 떠나가는 새.

00:37:01.318 --> 00:37:05.117

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
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.

00:37:05.217 --> 00:37:06.247
화자가 부러워하죠.

00:37:06.347 --> 00:37:07.320
왜 날 울리나.

00:37:07.420 --> 00:37:09.795
덧없는 가없는, 가없는은
끝없는 이런 뜻인데.

00:37:09.895 --> 00:37:14.784
끝없는 저 구름 아아
묶인 이 가슴이라고 해서

00:37:14.884 --> 00:37:20.711
화자의 억압적 현실을 새와
대조하면서 화자가 힘들어하고

00:37:20.811 --> 00:37:24.116
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잘
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입니다.

00:37:24.216 --> 00:37:26.487
지문 소화제 볼까요?

00:37:26.587 --> 00:37:29.283
(가)에서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고
있는 대상을 써라 그러면

00:37:29.383 --> 00:37:30.695
접동새를 쓰면 되겠죠.

00:37:30.795 --> 00:37:36.002
(나)는 극단적인 시어들이 상황의
절박함을 부각하고 있다.

00:37:36.102 --> 00:37:37.032
맞아요.

00:37:37.132 --> 00:37:40.655
뭐냐면 극단적인 시어라고
하면 밤새워 물어뜯긴다,

00:37:40.755 --> 00:37:43.563
닿지 않는 밑바닥이다 이런 것들.

00:37:43.663 --> 00:37:48.749
그다음에 묶여 있다, 시뻘건 몸뚱어리
이런 것들이 좀 극단적이죠.

00:37:48.849 --> 00:37:51.669
부드럽게 순화된 시어라고
보기는 어렵잖아요.

00:37:51.769 --> 00:37:53.382
절박함을 부각하고 있다, 맞고요.

00:37:53.482 --> 00:37:56.527

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에
쓰인 수사법은,

00:37:56.627 --> 00:37:58.509
수사법은 표현법이라는 뜻입니다.

00:37:58.609 --> 00:38:00.277
역설법이 쓰였죠.

00:38:00.377 --> 00:38:01.771
1번 문제 갑니다.

00:38:01.871 --> 00:38:05.788
(가)와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
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.

00:38:05.888 --> 00:38:08.574
(가)와 (나)에는 선명한
이미지 대조를 통해

00:38:08.674 --> 00:38:10.808
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.

00:38:10.908 --> 00:38:13.343
(가)에서는 없죠.

00:38:13.443 --> 00:38:15.613
선명한 이미지 대조라고
하는 게 없고요.

00:38:15.713 --> 00:38:17.803
(나)에서는 가능할 수
있을 것 같아요.

00:38:17.903 --> 00:38:21.859
(나)에서는 하늘, 구름, 산맥이라고
하는 게 자유로운 이미지라면

00:38:21.959 --> 00:38:25.334
묶여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
억압되어 있는 모습이니까

00:38:25.434 --> 00:38:27.634
(나) 작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00:38:27.734 --> 00:38:30.738
(가)와 (나)는 모두
직접적 토로를 통해서.

00:38:30.838 --> 00:38:32.957
직접적으로 감정을
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.

00:38:33.057 --> 00:38:35.084
시적 화자의 심정, 정답이죠.

00:38:35.184 --> 00:38:39.073
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(가)에서는
도람 드르샤 괴오쇼셔.

00:38:39.173 --> 00:38:43.056

다시 들으셔서 사랑해 주세요라고
직접적으로 얘기했죠.

00:38:43.156 --> 00:38:48.063
그다음에 묶인 이 가슴 그다음에
죽어서 너 되는 날에 아득함이여.

00:38:48.163 --> 00:38:51.104
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
화자의 감정이 나왔으니까

00:38:51.204 --> 00:38:53.062
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.

00:38:53.162 --> 00:38:58.466
(가)는 (나)와 달리 화자와
대조되는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.

00:38:58.566 --> 00:39:00.538
(가)에서 화자와
대조되는 게 없어요.

00:39:00.638 --> 00:39:03.198
오히려 (나)는
(가)와 달리라고 해서

00:39:03.298 --> 00:39:06.303
(나)가 대조되는 자연의
모습이 나와 있죠.

00:39:06.403 --> 00:39:09.607
(나)는 (가)와 달리 단정적인
어조로 화자가 지향하는

00:39:09.707 --> 00:39:11.032
삶의 방향을 제시한다.

00:39:11.132 --> 00:39:14.981
(나)는 (가)와 달리라고
했는데, 단정적인 어조는 ~했다.

00:39:15.081 --> 00:39:17.393
우선 (가)가 단정적인 어조예요.

00:39:17.493 --> 00:39:20.779
아라시리이다, 천만
없소이다, 절대 없습니다.

00:39:20.879 --> 00:39:22.916
다시 들으셔서 사랑해
주세요, 이렇게 얘기했잖아.

00:39:23.016 --> 00:39:25.582
단정적인 어조가 나와 있고요.

00:39:25.682 --> 00:39:28.285
그다음에 여기에서
두 번째 (나) 작품은

00:39:28.385 --> 00:39:32.399
그리움이여 아득함이여라고

하는 것은 단정적 어조라고

00:39:32.499 --> 00:39:33.486
얘기할 수 없어요.

00:39:33.586 --> 00:39:37.037
단정적인 어조는 딱 잘라서
말하다, 이런 뜻이거든요.

00:39:37.137 --> 00:39:40.275
그러니까 오히려 (가)가
단정적 어조가 맞죠.

00:39:40.375 --> 00:39:42.644
(가)가 역설이고 (나)는
수미상관이라고 했는데.

00:39:42.744 --> 00:39:44.939
역설은 (나) 작품에 나와 있죠.

00:39:45.039 --> 00:39:47.469
그다음에 (나) 작품은
수미상관이 될까요?

00:39:47.569 --> 00:39:49.584
(나) 작품은 수미상관도 되네요.

00:39:49.684 --> 00:39:53.637
(나)에서 역설과 수미상관이
다 쓰였습니다.

00:39:53.737 --> 00:39:58.001
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
것을 고르라고 얘기했는데.

00:39:58.101 --> 00:39:59.651
적절하지 않은 거죠?

00:39:59.751 --> 00:40:00.641
1번 볼게요.

00:40:00.741 --> 00:40:04.485
향가의 잔존 형태가 말하는 근거는
10구체 향가의 전통을 잇는

00:40:04.585 --> 00:40:05.535
낙구의 감탄사 아소.

00:40:05.635 --> 00:40:09.435
이거는 사실 수능형 문제라고
보기는 좀 어렵네요, 그렇죠?

00:40:09.535 --> 00:40:11.367
내신형 문제일 것 같아요.

00:40:11.467 --> 00:40:16.167
왜 이런 작품의 갈래별 특징
이런 것들이 직접 이렇게

00:40:16.267 --> 00:40:17.958
문제가 나오지는 않거든요.

00:40:18.058 --> 00:40:21.060
(가)의 작가는 자신이 처한
상황을 주위 환경의 소산으로

00:40:21.160 --> 00:40:23.553
보고 있다고 했는데,
주위 환경의 소산?

00:40:23.653 --> 00:40:24.977
결과물, 이런 뜻입니다.

00:40:25.077 --> 00:40:27.459
(가)에서 주위 환경이란
벼기더시니를 가리킨다.

00:40:27.559 --> 00:40:28.840
이건 해석 문제잖아요.

00:40:28.940 --> 00:40:32.386
벼기더시니는 우기던 사람이,
죄가 있다고 우기던 사람이.

00:40:32.486 --> 00:40:36.195
이게 이제 바로 주위 환경이니까
이것도 적절하네요.

00:40:36.295 --> 00:40:39.406
(가)의 작가는 귀양지에서 임금에게
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있다.

00:40:39.506 --> 00:40:42.460
저 절대 없습니다, 이렇게
얘기했던 거 기억나죠?

00:40:42.560 --> 00:40:44.723
(가)에서는 자연물인
잔월 효성에 기대어

00:40:44.823 --> 00:40:47.579
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
나타난다, 적절하죠.

00:40:47.679 --> 00:40:50.437
(나)는 작가가 감옥에 있을
때 쓴 작품이라고 했는데.

00:40:50.537 --> 00:40:52.911
묶인 이 가슴이라고 표현
한 데서 작가의 처지를

00:40:53.011 --> 00:40:54.523
당연히 추리할 수 있죠.

00:40:54.623 --> 00:40:57.423
5번, (나)에서는 감옥의
창살 밖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

00:40:57.523 --> 00:40:59.674
시인이 느꼈던 괴로움과
암울함이 드러난다고 했는데.

00:40:59.774 --> 00:41:01.790
(나)에서 하늘은 화자의
처지를 대변하는.

00:41:01.890 --> 00:41:03.613
이거 뭐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.

00:41:03.713 --> 00:41:08.374
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암울한 세상을
절대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.

00:41:08.474 --> 00:41:09.760
그렇죠?

00:41:09.860 --> 00:41:11.189
저 청청한 하늘이라고 했는데.

00:41:11.289 --> 00:41:13.190
문제가 너무 좀,
너무 쉽다, 그렇죠?

00:41:13.290 --> 00:41:17.537
여러분, 이런 문제 나오면
화가 나야 돼요, 이제.

00:41:17.637 --> 00:41:20.739
선생님, 저 김태동 선생님한테
배웠는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

00:41:20.839 --> 00:41:22.813
낸다는 게 좀 말이 돼요?

00:41:22.913 --> 00:41:24.770
이런 자신감, 아시겠죠?

00:41:24.870 --> 00:41:27.569
㉠과 ㉡에 대한 설명으로
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.

00:41:27.669 --> 00:41:29.856
접동새하고 새입니다.

00:41:29.956 --> 00:41:31.250
적절하지 않은 거네요.

00:41:31.350 --> 00:41:33.655
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
나타내고 있다, 그렇죠?

00:41:33.755 --> 00:41:35.770
접동새랑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맞고.

00:41:35.870 --> 00:41:37.957
자유롭고 싶어 하는 화자의
간절한 소망, 당연하죠.

00:41:38.057 --> 00:41:40.338
㉠은 ㉡과 달리 감정 이입 됐다.

00:41:40.438 --> 00:41:42.190

㉠이 감정 이입, 당연히 맞습니다.

00:41:42.290 --> 00:41:45.838
(나)에서는 (나)는 새라고 하는
것은 감정 이입된 게 아니에요.

00:41:45.938 --> 00:41:47.432
그래서 정답 맞고요.

00:41:47.532 --> 00:41:51.944
4번을 보면, 4번은 ㉡은 ㉠과
달리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.

00:41:52.044 --> 00:41:53.818
화자와 대조되는 거니까 적절하죠.

00:41:53.918 --> 00:41:55.987
㉠과 ㉡은 인격이 부여된 존재다.

00:41:56.087 --> 00:41:59.951
의인법이 쓰였다 그랬는데, 산
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라고 했는데.

00:42:00.051 --> 00:42:08.314
그런데 여기에서는 산 접동새가
의인법이 쓰이지 않았어요.

00:42:08.414 --> 00:42:12.157
왜? (나) 작품에서는 뭐라고
했냐면 날으는 새여라고 했고,

00:42:12.257 --> 00:42:17.000
3연을 보시면 여러분, 땅을 기는
육신이 너를 우러러라고 해서

00:42:17.100 --> 00:42:21.005
㉡은 너라고 표현했으니까
인격이 부여됐지만,

00:42:21.105 --> 00:42:24.572
(가)에서는 접동새와 나는
비슷하다고만 얘기했지.

00:42:24.672 --> 00:42:26.851
그러니까 인격이 부여된
건 아니거든요.

00:42:26.951 --> 00:42:30.471
그래서 정답이 5번이
정답이 되겠네요.

00:42:30.571 --> 00:42:31.562
됐나요?

00:42:31.662 --> 00:42:35.177
여러분, 여기까지 실전 문제
세 번째, 네 번째 마쳤습니다.

00:42:35.277 --> 00:42:37.725
1, 2, 3번 문제 다 마쳤고요.

00:42:37.825 --> 00:42:43.748
어려웠던 작품은 정과정이라는
작품이 여러분이 해석이

00:42:43.848 --> 00:42:46.358
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라서
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.

00:42:46.458 --> 00:42:50.908
문제를 보시면 문제는 조금 여러분이
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

00:42:51.008 --> 00:42:57.246
다음 시간에 5번, 6번
신경향 문제로 나왔네요.

00:42:57.346 --> 00:42:58.962
신경향 출제 문제니까요.

00:42:59.062 --> 00:43:00.593
5번, 6번 문제 풀겠습니다.

00:43:00.693 --> 00:43:03.250
문제 다 풀고 강의 들으시는
건 당연한 거죠, 여러분?

00:43:03.350 --> 00:43:04.323
여기까지 할게요.

00:43:04.423 --> 00:43:06.017
수고하셨습니다.